새벽을 여는 닭, 희망찬 새해를 선물하다

정유년 맞아 닭 전시 '다채'



십이지 신장 닭 신(酉神) 미기라 대장(1977, 만봉(萬奉) 作).

'꼬끼오~'

천지의 아침을 깨우는 경쾌한 닭의 울음소리. 묵은해를 털어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며 닭 전시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2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Ⅱ서 '정유년 새해를 맞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십이지 신장 닭신(酉神) 미기라 대장, 변상벽(卞相璧)필(筆) '계도(鷄圖)', '금계도(金鷄圖)'를 비롯한 닭 관련 회화 및 닭 모양 연적, 계이(鷄 彝), 다리미 등 생활용품 총 50여점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축계설(하달홍 作)〉에 따른 닭의 오덕(五德), 문(文) · 무(武) · 용(勇) · 인(仁) · 신(信)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총 3부로 △1부 서쪽을 지키다 △2부 오덕(五德)을 품다 △3부 일상을 함께하다로 구성된다. 휴관일 없음. (02)3704-3170

한국만화박물관은 1월 30일까지 4층 카툰갤러리서 송구영신 카툰전 '꼭끼오'를 진행한다. 정유년을 맞아 닭을 소재로 한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연하엽서 카툰작 50점을 전시한다. 강대영 · 김건 · 김마정 · 김정겸 외 25명 카툰작가들이 참여했다.

한국만화박물관 측은 "새벽을 알리는 상서로운 닭은 동물 중에서도 지혜롭고 신통한 능력을 지닌다. 인간에게 무척 이로운 동물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면서 "닭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유머와 풍자의 총아인 카툰으로 표현돼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032)310-3090~1

특별한 닭 그림을 만나고 싶다면 서울 종로구 **장은선갤러리**로 가보자. 장은선갤러리는 1월 14일까지 한상윤 작가 초대전 '복닥福닭展'을 진행한다. 한상균 작가는 이번 전시서 닭을 수묵채색으로 표현한 작품 20여점을 소개한다. (02)730-3553

여주박물관도 3월 31일까지 신관 1층 로비 전시홀에 특별전 '새벽을 여는 닭'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풍속화 · 민속화에 등장하는 닭 그림부터 현대작가들의 닭 관련 민화 · 자수 · 서예 작품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법화경 변상도

정유년 새해, 환희의 금빛 사경 속으로…

불일미술관, 신년특별전 '허락 금사경'
1월 2~15일 화엄경 등 100여점 출품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정유년 새해 첫 문을 환희의 금빛 사경으로 장식한다.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1월 2~15일 관내 2관서 신년 특별전 '허락 금사경'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서는 대방광불화엄경 · 금강경 · 지장경 · 법화경 등 허락 작가의 금사경 100여점이 출품돼 관람객들에게 장엄한 화엄세계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허락 작가는 각 경전마다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변상도를 함께 담아냈다. 변상도는 팔만대장경 변상도를 모본으로 작가의 창작성을 가미해 개작한 것이다.

허락 작가는 "팔만대장경판의 변상도는 더 이상 탁본할 수도 없으며, 그 상태가 매우 거친 편"이라며 "손상이 많이 된 팔만대장경 변상도를 모본으로 상세하게 개작,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작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경(寫經)은 불교 경전을 옮겨 쓴 것으로, 1700여년 역사의 문화예술이다. 고려시대 금사경은 중국, 일본 등서 사신을 보내 배워가거나 제작을 의뢰할 정도로 뛰어났다. 그러나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해 그 기법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소실됐다. 현재는 금사경 제작 기법 관련 문헌이나 계승자도 거의 단절된 상태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허락 작가는 금사경 복원을 자신의 서원으로 삼았다. 감지(紺紙)와 금가루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2002년 1월 대장경 사경작업에 본격 착수, 현재까지 △화엄경 절첩본 81권 2번 사성 △법화경 7권 7번 사성 △지장경 2권 5회 사성 △금강경 약 5,200자 80여회 사성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특히 허락 작가는 매일 아침 6시 예불을 올린 후 하루 10~12시간에 걸쳐 1800~1900자를 사경해 불교 5대 경전을 금사경으로 복원하기에 이르렀다. 사경이 단순히 글자를 베끼는 것이 아닌, 창조적 예술의 세계이자 깊은 수행임을 몸소 드러낸 대목이다.



자신의 사경작품 앞에서 설명하는 허락 작가.

6년 걸쳐 완성한 대방광불화엄경 등
매일 아침 예불 후 10~12시간 사경
각 경전마다 변상도도 함께 그려
한지도 특수제작… 표면처리까지 심혈

특히 허락 작가는 6년에 걸쳐 완성한 대방광불화엄경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 소개하며 "한 권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직 한 자루 붓만 사용하려 노력한다. 중간에 붓을 바꿀 경우 농담 및 글자 굵기 등이 바뀌기 때문"이라 말했다. 대방광불화엄경 사경은 총 81권으로 글자 수만 59만7,081자다.

또한 허락 작가는 글자 뿐 아니라 종이에도 공을 들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습기 · 바람 등에 취약한 한지의 특성을 고려, 3겹을 겹쳐 특수 제작해 표면처리까지 더했다.

불일미술관 측은 "현담 허락 작가의 전시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인 사경의 보급과 연구가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금사경의 감동으로 정유년 새해에 금빛 찬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허락 작가는 1947년 충북 괴산 출생으로 한국해양대 기관학과를 졸업했다. 과거 통도사 소장 금자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을 발견한 후 금자장경에 전율을 느끼고 금사경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문화재청장상 등 수상한 바 있으며, 2011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 및 대장경천년세계축제 금사경에 초대출품했다.

박아름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창작곡 43집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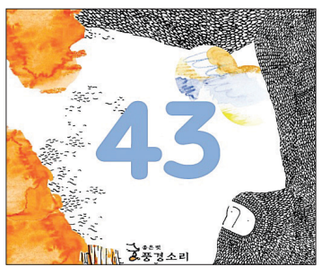
'우리 스님 겨울나기' 등 9곡 수록

좋은 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43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김남삼 씨의 '우리 스님 겨울나기(2015년 BBS불교방송 어린이 · 청소년 창작동요제 대상)'를 비롯해 불교계 신인 작곡가 강은영 씨의 '부처님 되자' 등 9곡 노래 및 반주음악이 포함됐다.

특히 수록곡 중 7번 트랙의 '불꽃놀이'는 아빠 정유탁 씨가 작곡하고, 아들 정다겸 군이 작사와 노래를 맡아 세대를 계승해 함께 했단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1996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2장씩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기점으로 발표해왔다. 이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 어린이법회 및 불교학교 찬불가 교재 등으로 활용돼왔다. (02)723-9836



풍경소리 43집 자켓.

박아름 기자

오방색과 농묵으로 통도사를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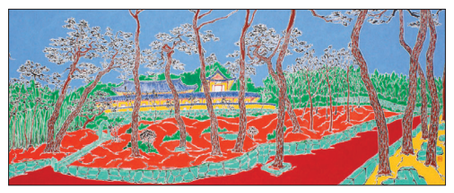
통도사성보박물관, 1월 10일~2월 27일

오방색이 뿜어내는 강렬함과 농묵의 중후한 느낌이 한 폭 풍경화에 담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1월 10일~2월 27일 2층 기획전시실서 김명수 작가 개인전 '원색으로 담는 풍경'을 실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찰 단청에 사용되는 오방색과 농묵이 한 데 어우러진 작품들이 소개된다.

사찰 풍경을 담은 작품에 독특한 화풍을 구축해 온 김명수 작가는 이번 기획전서 통도사 곳곳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담아낸 풍경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김 작가의 신작도 함께 전시된다.

김명수 작가는 2012년 10월 서울 'Gallary is'서 'Kim myoung soo Solo Exhibition', 2014년 4월 경주 시청갤러리서 초대 개인전, 2015년 5월 포항 갤러리 해와달서 초대전 등 7회 개인전을 연 바 있다. 현재 동국대 미술학부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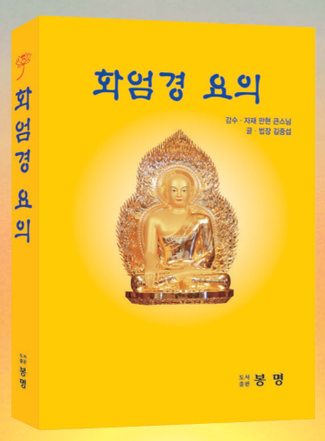


자장암 가는 길. 59×170.

박아름 기자

한권으로 완성된 '화엄경 요의'

- 드디어 2600년 동안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장엄한 부처님세계의 비밀이 드러나다.
- 대승경전의 꽃인 《화엄경》의 핵(核)을 파헤치다.
- 영원한 행복의 길을 제시한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 부처님의 절대성과 화엄세계관을 비롯한 《화엄경》의 진수(眞髓)를 현대물리학적으로 논증하다.
- 연화장세계를 정점으로 우리 우주를 넘어서 온 우주법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화엄경 요의'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

- 부처님은 '비로소 최초로 불신(佛身)을 갖춘 최초불(始成正覺)'이시다.
- 부처님은 우주법계를 포섭하시는 우주 주(The Lord of the universe) 절대자이시다.
- 《화엄경》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우주적위신력은 진실이다.
-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내어 보살도를 성만, 무아를 완성하여 불신(佛身)을 갖춘 '붓다가 되라'는 것이 '화엄경의 요의'다.

근간서적
세계종교를 신불교 영산불교의 우주적 관점에서 본 비교종교학

감수 · 자재 만현 큰스님
글 · 법장 김중섭

불서총판 운주사 TEL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대형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30쪽 | 특별가 25,000원